

# 영국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활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Libraries in Promoting Reading in the UK

김 영 석(Young-Seok Kim)\*\*

###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국민 독서진흥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협력하고 있는 민간단체 및 재단 |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6. 끝맺는 말                                |
| 3.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활동                  |   |
| 4. 공공도서관과 협력 하에 추진되는 전국단위의 독서진흥 사업 |   |

### 초 록

독서율과 독서량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우리 나라 성인들의 독서활동은 생활 속의 인터넷 이용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발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독서율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독서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 국민들의 독서활동을 계속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오랫동안 꾸준히 높은 국민 독서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독서 르네상스가 일고 있는 영국의 독서진흥 활동을 살펴본다.

### ABSTRACT

According to statistics, regarding book reading rates and the number of books read per person, adult literary reading in Korea is very active, even though Internet usage has increased over the last few years. This study plans to discover some practical methods of maintaining this dynamic trend. At present the overall book reading rate in Korea is second to Sweden and the number of books read per person is increasing every year. This study examines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libraries in promoting reading the UK, where the book reading rate has been high and a reading renaissance has occurred, as in Korea.

키워드: 독서, 독서진흥, 영국 공공도서관  
Reading, Reading Promotion, British Public Libraries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2005. 4. 22-23,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강사(y9s9kim@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5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6월 13일

## 1. 머리말

아래의 통계에 의하면 다른 나라 보다 일찍 공공도서관을 건립했고 현재까지 훌륭한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국민 독서율<sup>1)</sup>이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2년에 시행된 연구조사에 의하면 독서인구가 1982년에 비해 10%(2,000만 명) 감소하였다(Long 2005). 영국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도 국민 독서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량이 2004년 3월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4.7% 감소하였다(BBC NEWS 2005).

지난 30년 동안 미국 성인들의 독서경향을 조사해온 국가예술기금(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은 미국 국민들의 독서율 감소 원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TV시청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인터넷의 경우도 인터넷 이용과 비(非)독서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Long 2005).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TV시청과 인터넷의 이용은 비독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나라 독서실태 조사 대상 성인들의 11.4%와 10.7%는 독서장애 요인으로 각각 TV시청과 인터넷 이용을 들었다(한국출판연구소 2004). 그 중 인터넷 이용은 비독서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우리 나라 성인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 중 독서의 비중이 2002년 7.2%에서 2004년 5.9%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인터넷 이용은 7.8%에

서 10.9%로 증가하였다(한국출판연구소 2002; 2004). 우리 나라 성인들의 여가 활동 중 인터넷 이용 비중의 증가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IT 인프라 구축에 따른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인구는 3,000만 명이고 성인 인터넷 이용율은 2002년 60.3%에서 2004년 69.5%로 크게 증가하였다(한국출판연구소 2002; 2004). 그런데 흥미 있는 사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나라 성인들의 독서량은 2004년 11 권으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으며, 지난 96년 이후 계속 증가<sup>2)</sup>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한국출판연구소 2004). 또한 성인 독서율도 지난 2002년 72%로 감소했다가 2004년 76.3%로 다시 증가하였다(한국출판연구소 2002; 2004). 이러한 현상은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훌륭한 독서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 독서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영국 및 미국의 상황과 크게 대조적이다. 2004년 현재 이 두 국가 국민들의 연평균 독서율은 미국이 50.2%(6개월 독서율)이고 영국은 75%이다(한국출판연구소 2004). 한편 2004년 현재 우리 나라의 독서율(76.3%)은 인구수 대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핀란드(76%)보다도 더 높다(한국출판연구소 2004).

이처럼 우리 나라 성인 독서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진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책, 독서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된 TV 프로그램<sup>3)</sup>이었던 것 같다. 2004년 국민독서실태를 조사한 한국출판연구소(2004)는 'TV 독서

1) 1년에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국민의 비율

2) 1996년 9.1권, 1999년 9.3권, 2002년 10.0권 그리고 2004년 11.0권

프로그램이 화제 도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5년 2월 한 방송국의 독서 및 도서관관련 프로그램은 그 막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 성인들의 독서율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었는지는 몰라도 지난 10년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 많은 변화 중 도서관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해 출현한 인터넷의 일상생활에서의 이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의 인터넷의 보편화는 정보화 사회를 빠르게 진척 시켰고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인쇄매체에 대한 위기감과 더불어 독서 위기가 초래되었다. 그런데 흥미있게도 이러한 인쇄매체 그리고 독서에 대한 위기감은 오히려 지난 몇 년 사이에 국·내외에서 독서르네상스(reading renaissance)를 일으켰다.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 불기 시작한 책 읽기 운동의 구호였던 '다시 책이다'라는 표어는 우리나라에서 독서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하겠다.

한편 지난 몇 년 사이에 영국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는 많은 책, 독서 그리고 도서관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 및 기관들이 만들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기 시작한 영국의 독서

르네상스(Denham 2003)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영국의 공공도서관들은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민간 혹은 정부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1 연구의 목적

필자는 영국이 우리 나라 보다는 더 나은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인 독서율이 우리 나라 보다는 낮은 상황에서 영국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활동에 대한 연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필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세계에서 두 번째(한국출판연구소 2004)로 높은 독서율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독서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활동을 계속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방법을 찾는 데 두고자 한다. 즉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활발한 독서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독서진흥 방법을 모색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는 비록 우리 나라 보다 성인 독서율이 조금 떨어지고는 있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높은 독서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독서르네상스가 일고 있는 영국

3) KBS의 'TV, 책을 말하다' 그리고 MBC의 '느낌표'.

의 독서진흥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즉, 공공도서관,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 협력한 가운데 국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2.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와 같은 사례 연구는 현지에서 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경영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나 인터뷰 방법을 이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채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영국 공공도서관들이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내용을 도서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문헌조사, 특히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필자는 2003년에 '영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그리고 2004년에 '영국 북스 타트 운동의 의의와 그 추진 현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영국 셰필드지역 27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였고 이 때 사서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의 일부를 이용하였다. 또한 박사학위 논문(Kim 2003)을 쓰기 위해 영국 다섯 지방의 15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이용자(주로 도서관의 친구 회원들), 도서관 경영자와 직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그 때 수집된 데이터 중

에는 공공도서관이 운영하는 독서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도 본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이외에도 영국에서 9년간 생활하면서 직접 공공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며 경험한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3.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활동

### 3. 1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독서진흥 활동

영국에서 어린이 및 유아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한 부분이다. 즉 영국에는 어린이 및 유아만을 위한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없다. 따라서 어린이 특히 유아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의 운영은 전적으로 공공도서관의 몫이다(김영석 2003).

1850년에 영국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y Act)이 만들어진 이후의 영국 공공도서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들은 처음부터 어린이를 위하여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린이서비스 혹은 어린이를 위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보다 늦게 제공되고 마련되었다. 즉 어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의 관심과 복지의 대상이 성인에서 어린이로 확대되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도서관에까지 영향을 끼쳐 도서관서비스 및 독서 프로그램도 어린이 그리고 다시 유아에게까지 확대 되었다. 다음의 사실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현재 영국의 모든 공공도서관(분관)에는 어린이를 위한 세 가지 형태의 별도의 열람실 혹

은 열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1852년에 영국 만체스터(Manchester)에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개념의 무료 공공도서관이 문을 열고 그 후 30여 년간 전문적인 개념의 '어린이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영국 공공도서관으로는 최초로 1882년에 만체스터 공공도서관에 '(남자)어린이열람실(Boy's Reading Room)이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김영석 2003).

현재는 어린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세분화 되었다. 즉 어린이 서비스가 생후 6개월 된 영·유아에게 까지 제공 되고 있고 이 연령층의 유아들을 위한 독서진흥 프로그램<sup>4)</sup>이 운영되고 있다.

### 3. 1. 1 Bookstart

영국 공공도서관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독서 활동은 Bookstart 관련 프로그램들이다. 북스타트 운동은 비영리단체인 북트러스트(Booktrust)의 구상에 의해서 1992년 버밍햄(Birmingham) 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Booktrust [2005]). 현재는 영국 전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 이 운동이 퍼졌다. 북스타트는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영·유아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 주는 전국적인 독서 및 교양증진 사업이다. 영국의 공공도서관들은 국민독서 및 교양 증진 이라고 하는 이 운동의 취지가 자신들의 존재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셰필드 공공도서관은 이 운동과 관련해서 영·유아 및 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영석 2004).

- '유아시간'(Baby Time)

이 프로그램은 만 3세 이하 유아와 그 부모 혹은 이들 '유아를 돌보는 사람'(Baby Care)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서관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최저 1시간에서 최고 1시간 30분 동안 진행 된다. 도서관은 이 프로그램 시간에 유아와 이들의 보호자에게 장난감, 부드러운 놀이기구, 책 그리고 간단한 음료수와 비스킷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내용은 '책 나누기'(sharing a book): 책 함께 보기, 노래 부르기, 시 읽으며 놀기 사회화(socialising): 친해지기, 도서관의 가족서비스(family service) 소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기고 오르기'(Crawl and Climb)

이 프로그램은 내용면에서 '유아시간'과 거의 같다. 다만 '유아시간'에 비해 좀더 개월 수가 많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운영 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 '가족학습사업'(Family Learning Project)

유아의 부모들과 '유아를 돌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5주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유아도서비평(baby book review),

4) Bookstart

‘자신들의 아이를 주제로 한 책과 노래 만들고 시짓기’, ‘유아와 관련된 좋은 웹사이트 소개’ 그리고 유아들의 독서와 관련해서 ‘연령별로 독서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등이다.

• 여름 가족독서 프로그램

북스타트 도서관 카드를 소지한 북스타트가족'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6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 기간 동안 한 가족이 여섯 권의 책을 대출하면 그 가족에게 작은 상품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북스타트가족이 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Bookstart 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진흥 운동이다. 그러나 영유아들은 독서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도서관들은 부모들이 유아들과 함께 독서 활동을 하게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는데 위에 소개한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위의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책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냄으로써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하고 독서습관을 기르도록 유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언어발달 그리고 장애아들의 장애 극복을 도와준다. 더 나아가 이들 독서프로그램은 유아와 부모간의 친밀감을 높여주고 부모들이 자주 도서관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아이와 부모의 사회화(socialising) 즉,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돕는다.

3. 1. 2 Chatterbooks

Chatterbooks는 4-12세 어린이를 위한 전국

단위의 독서회이다. 이 독서회는 재정적으로 Orange<sup>5)</sup>의 지원을 받고 있고 독립 독서개발 단체인 LaunchPad가 공공도서관 - 7개 지역 도서관당국 - 과 협력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 Chatterbooks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책을 읽도록 장려하고, 책을 선정하고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Orange 는 독서회 조직을 만드는 일, 관련 직원 교육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독서 관련 지침서를 만드는 작업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Orange 는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독서 자료를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2]).

3. 2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흥 활동

3. 2. 1 Reading Connects(National Literacy Trust 2004)

교육기술부(DfES)의 기금으로 National Literacy Trust에 의해 추진되는 Reading Connects는 중·고등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독서 진흥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즉 중·고등학교의 학생, 교직원, 보조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최적의 독서환경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공공도서관과 다른 독서진흥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 National Literacy Trust는 시민들이 독서를 통해서 삶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

5) 영국에 있는 정보통신회사

도록 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세우고, 좋은 사업 추진 사례를 널리 알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3. 2. 2 문제 청소년을 위한 독서진흥 활동

The Reading Agency(TRA)는 공공도서관과 공동으로 문제 청소년을 위해 Splash Extr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여름방학 동안 추진한다. Splash Extra는 문제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TRA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0개 지역 도서관당국 그리고 청소년 문제 혹은 청소년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독서관련 멀티미디어 예술 활동을 개최하는 것이다. 2,500명의 문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이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전에 한 번도 도서관을 이용해 보지 않았고, 어휘 도서 그리고 독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2]).

## 3. 3 소외 계층을 위한 독서진흥 활동

### 3. 3. 1 흑인 청소년과 거동이 불편한 집안 생활자를 위한 독서진흥 활동

리버풀(Liverpool)을 비롯한 33개 지역 도서관당국은 흑인 청소년과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 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Branching Out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에서 소외된 흑인 청소년과 몸이 불편해 바깥 외출이 쉽지 않아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 출판사 그리고 도서관매상들이 협력한 가운데 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읽도록 권장한다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2]).

한편 영국 대부분의 도서관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집안 생활자들에게 규칙적으로 책을 집으로 가져다주는 서비스'(Housebound Service)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도서관들은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나 '도서관의 친구'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도서관들은 이러한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도서관을 찾지 않는 주민들에게까지 그들의 독서 활동을 돕고 있다.

### 3. 3. 2 교도소 수감자를 위한 독서진흥 활동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2])

Big Book Share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프로그램이다. 영국 정부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교도소는 각 지역 도서관 당국을 통해서 모든 수감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매우 앞서가는 교도소조차도 수감자들이 아무 할일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끔 내버려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마련된 프로젝트가 Big Book Share이다. 즉 수감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와준다면 교도소 내에서의 독서가 매우 의미 있는 레저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프로젝트가 착안되었다.

한 지역에서 이 프로젝트는 지역 도서관당국, The Reading Agency, 지역 교도소, 한 백화점, 지역 예술단체 그리고 23개 어린이도서 출

판사가 협력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사서들은 2주에 한 번씩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책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고 수감자 자녀들의 독서를 지도해준다. 수감자들은 자신들을 방문한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를 통해서 책 읽는 능력을 기른다. 수감자들은 자녀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들을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녹음하기도 한다.

### 3. 4 성인을 위한 독서진흥 활동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국 공공도서관의 독자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공도서관들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내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우리 나라 문화관광부가 영국의 독서진흥 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즉 '영국은 미디어를 통한 독서진흥보다는 국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영국은 150년 전부터 국민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서관법을 만들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지난 150년 동안 수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의 독서문화는 완벽하게 갖춰진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숙되었다. 결론적으로 영국 국민들의 활발한 독서 활동은 잘 갖추어진 공공도서관 인프라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영국 국민들의 활발한 독서 활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전국의 208개 지방자치정부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영국의 공공도서관 행정 체계는 우리 나라 도서관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인, 운영(지방자치정부)과 감독(문화부)이 각각 하나의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관련된 행정 체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독서 활동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모든 공공도서관들이 하나의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고 하나의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도서관 및 독서정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전국적인 독서 캠페인을 전개시킬 때 감독과 운영기관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캠페인의 전개가 일사불란해지고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독자개발 활동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검색과 대출이 편리해지고 이러한 편리성은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책을 빌리고 읽게끔 유도한다.

CIPFA(2003)의 통계에 의하면 2002년 3월 현재 1주일에 10시간 이상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은 영국 전역에 3,944개관이 있다. 결국 영국 208개 시·군·구에는 평균 1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인구 약 15,000 명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는 셈이다. 또 도서관직원은 총 25,724 명으로 사서 1명이 맡는 봉사인구는 약 2,286 명이다. 결국 이러한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영국 국민들의 꾸준한 독서 활동을 유지시키고 있다.

#### 3. 4. 1 독서회(Reading group)

영국 공공도서관들이 성인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자개발 활동은 독서회



(Reading group) 로 이 모임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독서회는 독서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좀 더 깊이 있는 도서 즉, 책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다. 어떤 독서회 모임은 공공도서관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어떤 모임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공도서관은 모임의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독서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독서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한 도서관 당국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계의 독서회 활동 (Shropshire County Council 2005)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서회1:

이 모임의 회원들은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저녁 7.30분에 중앙도서관의 Hobbs Room 에서 만난다. 이 독서회는 좀더 깊이 있는 문학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모임은 토론할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요 질문들이 계속해서 던져진다. 토론 모임은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되고 모임 종료 전에 다음 모임을 위한 책이 회원들에게 배포된다. 매주 대략 6-10명 정도의 회원들이 모임에 참석하며, 모임은 신입회원의 가입을 언제나 허용한다.

\* 독서회2:

이 독서회는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저녁 7.30분에 중앙도서관의 Hobbs Room 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 독서회는 책에 대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는 모임이다. 커피와 차를 마시

고 비스킷을 먹으면서 저녁 모임이 시작되고 토론할 이 달의 도서가 한 회원에 의해서 소개된다. 본 토론 시간이 끝나면 그 동안 각자 읽은 다른 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이 완전히 종료되면 다음 모임에서 토론할 책을 회원에게 나누어 준다. 모임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된다. 현재 회원은 12명인데 언제든지 신입회원이 가입할 수 있다.

\* 독서회3:

‘수요독자그룹’(Wednesday Readers’ Group) 이라고 불리는 이 독서회는 낮 시간대에 모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다. 이 독서회는 매달 셋째 수요일 낮 10시부터 12시까지 중앙도서관의 Hobbs Room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상의 예를 통해 볼 때 이 지역 독서회는 매달 한 번 약1시간 반에서2 시간 동안 모임을 갖는다. 이러한 모임형태는 모임이 매주 혹은 격주 등과 같이 자주 열리지 않고 또 2시간 이상 오래 지속되지 않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참석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임을 가까운 공공도서관에서 가짐으로서 모임장소 물색에 대한 부담도 없는 것 같다.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독서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즉 독서회에 매달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빌려주고 독서회가 미리 예약을 하면 독서회 회원 수 만큼 회원들이 다음 모임에 읽을 책인 독서회 도서 (Reading Group sets) 들을 준비해 둔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독서회를 소개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독서회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있

다. 새로운 독서회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독서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서회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3. 4. 2 독서회의 도서관 정책 참여

독서활동을 위한 영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독서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도서관당국(Library Authority)이 독서회를 도서관 운영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영국 몇몇 지역의 도서관당국은 시민들을 도서관 운영 및 정책 결정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독서회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Sandwell 도서관당국은 도서 선정담당자가 선정대상의 일부도서를 독서회 회원들에게 읽게끔 하고 이들로부터 선정대상 도서에 대한 평을 듣고 이들 도서의 구입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Kim 2003).

한편 김승환(2002, 228)은 '독서회 활동은 주민들의 독서문화와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봉사활동도 활성화 시킨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Sandwell 중앙도서관의 독서회가 바로 도서관의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킨 경우이다. Sandwell 공공도서관에는 '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the Library)가 이 지역 19개의 모든 도서관에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도서관의 친구'는 자원봉사, 기금모금, 도서관홍보, 로비 및 캠페인 그리고 지역주민 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 중앙도서관의 경우 이 도서관에서 활동하던 독서회가 '도서관의 친구'로 변신하여 독서회 활동과 도서관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Kim 2003).

### 3. 4. 3 커피모닝(Coffee Morning)

위에서 밝혔듯이 영국의 공공도서관의 독자 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공공도서관이 주도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내에서 행해지는 독서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성인들의 독서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된 방법은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고 시민들이 도서관 내로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영국의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성인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커피모닝'을 주관하는 것이다. '커피모닝'은 지역주민 혹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내의 열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비스킷을 먹으면서 이웃주민과 다른 이용자 그리고 사서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도서관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게끔 유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의 유무형의 서비스 즉, 정보제공과 도서 등 다양한 자료 대출서비스 등을 피부로 느끼게끔 한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가 되어 책을 읽고 빌려가게끔 유도한다. 또한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들은 이 커피모닝에 참석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고 그 때 마다 서너 권의 책을 빌려가고 반납한다.

한편 이러한 커피모닝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지역의 사랑방 구실을 하게끔 해준다. 영국의 경우 개인주의가 팽배해 이웃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이웃끼리 빈번한 왕래가 없으므로 독거노인 등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커피모닝이

그들에게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커피모닝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혹은 1주일에 두 번씩 마련되기도 한다. 도서관에 자원봉사 혹은 ‘도서관의 친구’가 있는 경우 이들이 도서관 직원들과 함께 커피모닝을 준비한다. 기본적으로 커피모닝에서 제공되는 커피, 음료수, 비스킷은 무료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도서관의 친구’가 있는 경우 이들은 종종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적은 액수이지만 현금 즉, 서비스 수혜자들이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박스에 넣은 돈으로 기금을 모으기도 한다. 모아진 기금은 다음번의 커피모닝을 준비하거나 도서관장서나 비품을 구입하는데 쓰여 진다.

#### 3. 4. 4 주민들이 펼치는 주민들을 위한 독서진흥 활동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도서관의 친구’들은 종종 도서관, 주로 중앙도서관의안이나 밖에서 지역주민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서 각종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독서진흥 활동을 수행한다.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독자를 개발한다. Rotherham 중앙도서관과 West Hampstead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내에서 작가 초청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고취 시킨다. 또 Rotherham 지역의 ‘도서관의 친구’의 연합조직(the Federation of Rotherham Friends of Library Groups)은 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하여 ‘어린이도서축제’(Children’s Book Festival)를 개최하고 있다(Kim 2003). 이 축제는 민간 기구인 ‘도서관

의 친구’가 먼저 시작하였는데 후에 자치단체와 도서관당국이 후원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축제로 자리 잡았다.

#### 3. 5 직장인을 위한 독서진흥 활동(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2])

Novel Route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독서진흥 프로그램인데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동안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 신용카드 회사와 West Sussex 그리고 Brighton 공공도서관들이 협력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생산적인 독서를 위해 어떻게 도서관과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지 그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영국 남동부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Books & Busines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자개발 담당직원은 West Sussex와 Brighton에 있는 한 신용카드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 점심시간 동안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지역 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에 맞는 도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자개발 직원은 직장인들로부터 이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듣고 차후 Book & Business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에 참고한다. 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장인들에게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도서관 밖에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터득한다. 한편 신용 카드 회사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실을 빌려주고 자체직원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였다.

## 4. 공공도서관과 협력 하에 추진되는 전국단위의 독서진흥 사업

### 4. 1 National Year of Reading

National Year of Reading(독서의 해)은 교육고용부(the State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의 전임 장관이었던 David Blunkett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그는 독서하는 국가를 만들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독서기준을 높이기 위해 '독서의 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첫 번째 추진 과제는 어린이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판사, 공공도서관, 기업가, 미디어 그리고 교육 및 민간단체의 대표들을 주축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이 자문위원회에 도서관을 대표하는 사람을 참여시킴으로써 '독서의 해'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3년간 4백만 파운드(약80 억원)를 지원하였는데 이 사업 추진 기관은 1998/99 회계 년도에 86개 세부 사업추진을 위해 80만 파운드(약16억원)를 배정하였다(Denham 2003).

### 4. 2 National Reading Campaign(National Literacy Trust 2005)

National Literacy Trust(NLT)에 의해 추진되는 National Reading Campaign(전국독서캠페인)은 '독서의 해' 후속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로부터 2004년 3월까지 사업 기금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의 주요한 목

적 중의 하나는 여가 혹은 목적을 갖는 독서가 시민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학교와 공공도서관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NLT는 10,000여명의 독자들에게 재단의 소식 전국적인 독서관련 행사 그리고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해 1년에 3번 'Read On'이라는 소식지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 4. 3 World Book Day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독서와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1995년에 World Book Day(세계 책의 날)를 제정하였다(윤현옥 2004). 영국의 공공도서관들로 1998년부터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왔고 2003년에는 '세계 책의 날 온라인 축제'(World Book Day Online Festival)를 개최하였다. 도서관들은 'People's Network' 사업으로 마련된 인터넷 가능한 컴퓨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작가 초청행사를 런던의 Peckham도서관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이었고 작가와 독자가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었다. '세계 책의 날 온라인 축제'는 World Book Day, Resource: the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Cilip 그리고 The Reading Agency가 협력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5. 국민 독서진흥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협력하고 있는 민간단체 및 재단

### 5. 1 National Literacy Trust(NLT)(National Literacy Trust 2005)

최근에 영국에서 독서진흥을 위해 정부에 의해 지원된 여러 사업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추진된 ‘책의 해’(National Year of Reading)이다. 이 사업은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인 National Literacy Trust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NLT는 ‘책의 해’ 후속 사업인 ‘전국독서캠페인(National Reading Campaign)’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인 ‘Reading is Fundamental, UK’, ‘Reading the Game’ 그리고 ‘Reading Connects’를 추진하고 있다. 재단의 사업 목표는 국가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 문맹 퇴치를 높이는데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문맹자들로 하여금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자신들의 성공적인 학습 토대 구축에 도움이 되는지를 인식하도록 해주는 데 있다.

### 5. 2 The Reading Agency(TRA)

지역 혹은 전국에 기반을 두고 있던 세 개의 독자개발 단체였던 Well Worth Reading, LaunchPad 그리고 Reading Partnership은 독자개발, 문학 장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무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이 새로운 기관이 The Reading Agency이다. TRA는 ‘영국(잉글랜

드) 예술 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와 CILIP(영국도서관협회)으로부터 사업 기금을 지원받는다. TRA의 주요 사업 활동은 공공도서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TRA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정신을 격려하고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와 운영을 지원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등 공공도서관과 함께한 가운데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독서진흥 활동을 펼쳐 궁극적으로 독서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Denham 2003). TRA의 구체적인 사업 중의 하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각 지역의 도서관당국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로 하여금 6권의 책을 읽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TRA는 각 도서관당국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도와준다(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2]).

### 5. 3 Arts Council of England(ACE)(Denham 2003)

‘영국(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는 2002년 10개의 ‘잉글랜드 지역예술위원회’(Regional Arts Boards for England)와 통합되어 하나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났다. ACE는 부분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ACE가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은 중앙정부와 National Lottery로부터 지원된 것이다. 두 기관은 각각 295백만 파운드(약 5,900억원)와 200백만 파운드(약 4,000억원)를 지원하였다. ACE는 예술관련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있는데 문학담당 부서는 다부 부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ACE의 문학담당 부서장

인 Gary McKeone은 ACE의 독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CE의 독자개발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독서는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단순한 명제에 근거하고 있다. ACE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주로 공공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다. 그 이유는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각 동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문학센터가 되고 문학센터의 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은 문학의 극장이고, 공연장이며 화랑인데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것처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끌어안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극장, 공연장 그리고 화랑과는 다르다.

우리는 공공도서관이 그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사서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사서들은 문학 장려자가 되어야 하고, 책을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추천도서 전시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상력을 가져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창조력이 있어야하며 도서관을 문학 활동의 중추센터로 만드는 데는 야망을 가져야 한다.

Opening the Book 사업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Branching Out 프로젝트는 바로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즉 이 사업의 목표는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현대 문학의 독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사서가 현대문학을 장려하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훈련시킨다. 사업 초기에 약 33개 도서관당국이 지원을 받았다. ACE는 이 사업에 30만 파운드(약 6억원)를 투자했고 이

제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CE는 공공도서관을 주 대상으로 삼아 전국단위의 하나의 독자개발청을 만들기 위해 Reading Partnership, Well Worth Reading 그리고 LaunchPad를 통합한 The Reading Agency를 지원하고 있다.

#### 5. 4 Paul Hamlyn Foundation

이 재단은 책을 구하지 못해 독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사람들을 위해 책, 독서 그리고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6백만 파운드(약52억원)의 기금으로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위의 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2003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3년간 기금을 지원한다. 이 재단이 지원하는 중점 과제 중의 하나는 '도서관 연결'(Libraries Connect) 분야인데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요청중인 외국인들을 위해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공공도서관은 재단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Denham 2003).

#### 5. 5 London Libraries Development Agency (LLDA)

LLDA(런던 도서관개발청)는 런던지역 도서관당국들이 협력하여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도서관당국간에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에 설립되었다. LLDA의 상임위원회 의장직은 런던지역 지방의회 의원이 맡고 있다. LLDA의 최근 사업 중의 하나는 '책과 기업'(Books & Business)이라는 프로젝트로 독자개발을 위해 도서관과 기

업이 어떻게 긴밀하게 상호협력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1년간의 사업이다. LLDA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런던 예술기업'(Arts & Business London) 그리고 The Reading Partnership과 협력하고 있다. 이 사업의 장기 목표는 지역에서 혹은 런던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공공도서관과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London Libraries Development Agency 2003)

#### 5. 6 DCMS/Wolfson Public Libraries Challenge Fund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에 의해 추진되는 독자개발(reader development) 사업을 2년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이 기획되게 된 데에는 '책의 해' 사업의 영향이 컸다. 이 사업은 1997년에 시작되었는데 공공도서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사업은 처음에 도서관의 ICT 분야를 재정비하는 것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그러다 2000년에 공공도서관의 독자개발과 독서진흥 활동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독서를 하나의 기술과 즐거움으로 장려하는 공공도서관의 전통적인 강점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새로운 독자를 발굴하기 위해 새롭게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사업기금을 지원한다(Denham 2003).

### 6. 끝내는 말

영국의 공공도서관들은 지난 150년 동안 국민 독서문화를 이끌어 왔고 국민들의 독서활동

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지난 10여년 사이에 인터넷의 출현 등 다양한 사회변화로 인해 독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자 공공도서관들은 다시금 독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독서진흥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과거의 소극적인 경영방식을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도서관이용자, 즉 독자를 발굴해 내는 적극적인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협력한 가운데 지난 10여년 사이에 가장 활발한 독서진흥 및 독자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독서르네상스(Denham 2003)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공공도서관들의 독서진흥 및 독자개발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독서진흥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여러 기관들이 이 인프라를 중심으로 독서진흥 활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독자를 개발하기 위해 중앙정부부처,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기업들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교도소, 청소년부서, 병원 그리고 학교들과도 협력한다. 한편 중앙정부는 독서관련 민간단체들이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독서진흥 및 독자개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많은 지

원을 한다.

셋째, 공공도서관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독서진흥 및 독자가발 활동을 수행 할 때 교육·기술부<sup>6)</sup>와 문화·미디어·체육부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공도서관의 활동들을 지원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나라의 독서율을 계속 유지시키고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독자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수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잘 구축된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국민 독서진흥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서를 통해서 독자를 개발하고 독서진흥 활동을 펼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시간에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갖추는 방법은 영국을 비롯한 선진 유럽 국가들처럼 도서관을 작은 규모의 분관 위주로 건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도서관 건립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공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시형으로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 방식은 하루빨리 중단되고

실속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을 통한 국민 독서진흥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야 한다.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하고 주민들의 도서관 방문을 대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회원) 카드 발급과 대출 규정을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도서관 카드 발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sup>7)</sup>하고 대출 기간<sup>8)</sup>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공공도서관을 통한 국민 독서진흥 및 독자가발 활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가정 할 때,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관리·감독 기관이 일원화 되어야 한다. 즉 영국의 시스템처럼 관리와 감독이 각각 하나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때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는 극대화 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독자를 개발해 낼 수 있다.

넷째, 공공도서관은 국민 독서진흥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독자를 개발해 내는 경영방식을 채택한다. 즉 도서관을 찾아오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독서진흥 활동을 펼칠게 아니라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 혹은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에게까지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다.

6) 교육·기술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7) 우리 나라의 몇몇 공공도서관의 경우 회원카드 발급시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진이 필요 없고 어린이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도서관카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8) 영국의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의 대출 기간은 3주이다. 또 National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 는 대출 기간은 3주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 우리 나라의 많은 공공도서관의 대출 기간은 14일(2주)이고 몇몇 도서관의 경우 7일에 불과하다.



## 참 고 문 헌

- 김승환. 1999.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과 독서회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0: 223-241.
- 김영석. 2003. 영국의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도서관』, 58(4): 3-38.
- 김영석. 2004. 영국 북스타트 운동의 의의와 그 추진 현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1-313.
- 김영석. 2005. '도서관의 친구'에 관한 고찰: 도서관도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279-294.
- 문화관광부. 2004.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서울: 문화관광부.
- 윤연옥. 2004. 학교도서관 행사 운영의 실제.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편. 『2004 학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직무연수』.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 한국출판연구소. 2002. 『2002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관광부.
- 한국출판연구소. 2004. 『2004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관광부.
- BBC NEWS. 2005. "Library borrowing still declining." [online].  
 <<http://news.bbc.co.uk/go/pr/fr/-/1/hi/scotland/4169991.stm>>[cited 2005.1.19]
- Booktrust. [2005]. "Bookstart: programme history." [online].  
 <<http://www.bookstart.co.uk/general/history/index.html>>[2005.1.15.cited]
- CIPFA(Charged Institute of Public Fiance and Accountancy). 2003. *Public Library Statistics*. London: CIPFA.
- Denham, D. 2003. "Reading: A UK National Focus." In: Elkin, J., B. Train and D. Denham. 2003. *Reading and Reader Development: The pleasure of reading*. London: Facet Publishing.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2]. *Framework for the Future*. London: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Elkin, J., B. Train and D. Denham. 2003. *Reading and Reader Development: The pleasure of reading*. London: Facet Publishing.
- Kim, Y. S. 2003. *Public Library and Friends of the Library Groups: The influence of Friends groups on public library policy*.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London Libraries Development Agency. 2003. "Welcome to the LLDA website from the Chair." [online].  
 <<http://www.llda.org.uk/cms/contentpage/home>> [cited 2005.4.7]
- Long, S. A. 2005. "Who's reading in the United States?." *New Library World*, 106(1/2): 40-42.
- National Literacy Trust. 2004. "Reading Connects." [online].

<<http://www.readingconnects.org.uk>>[cited 2005.3.17]

National Literacy Trust. 2005. "About the NLT." [online].

<<http://www.literacytrust.org.uk/About/index.html>>[cited 2005.4.1]

National Literacy Trust. 2005. "National

Reading Campaign." [online].

<<http://www.literacytrust.org.uk/campaign/index.html>>[cited 2005.4.3]

Shropshire County Council. 2005. "Reading groups in Shropshire." [online].

<<http://www.shropshireonline.gov.uk/library.nsf>>[cited 2005.3.10]

